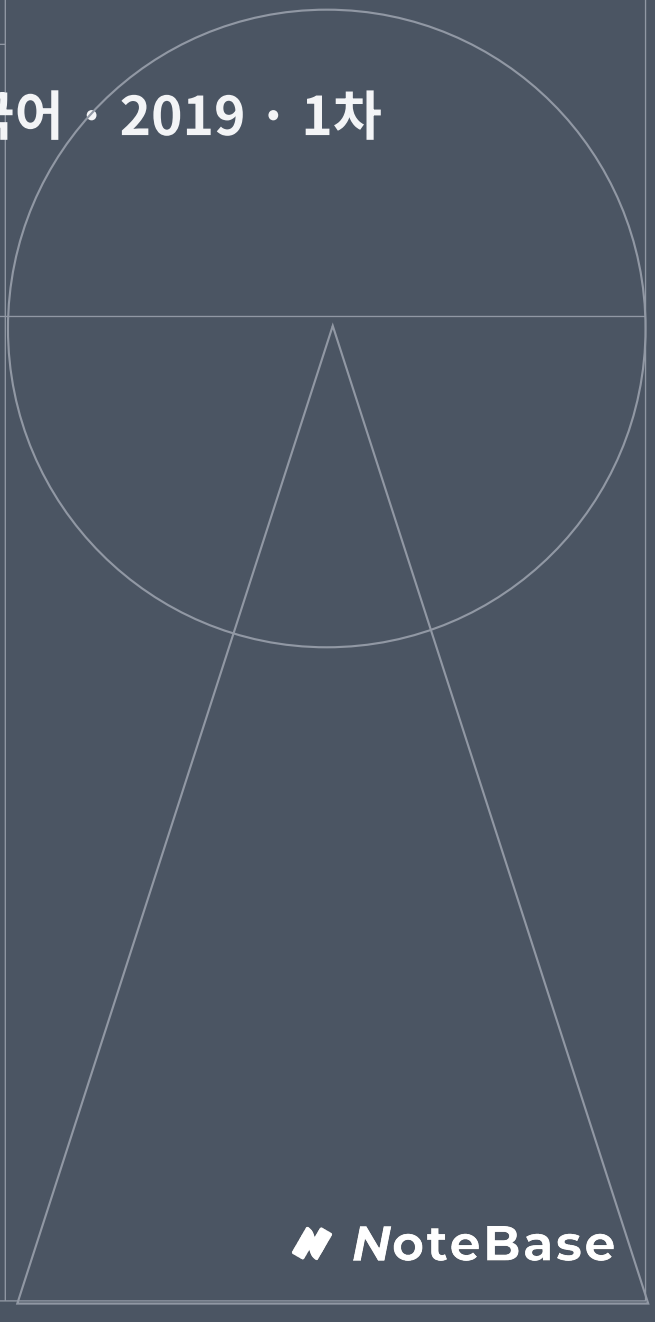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1차

문 1.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기관에서는 신년도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3월부터입니다.

② 등굣길에 있는 신호등의 갯수와 점등 횟수를 점검하십시오.

③ 어떡해 번번히 합격율이 낮습니까?

④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할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음 법칙, 사이시옷, 부사의 표기, 준말과 어미의 표기를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년도’는 ‘신년+도’의 구조이므로 ‘년도’로 적지만, ‘회계 연도’는 ‘연도’가 독립된 말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해 적는다. 한자어 ‘개수’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지만, ‘횟수’는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 한자어이다. ‘어떻게’는 뒤의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서술어이다. ‘생각지’는 ‘생각하지’에서 ‘하’가 완전히 준 형태이며, ‘-ㄹ게’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ㄹ께’가 아니라 예사소리로 적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년도’는 맞는 표기이지만 ‘회계년도’가 틀렸다. ‘연도’가 독립된 말로 결합한 것이므로 ‘회계 연도’로 고쳐야 한다.

② X
‘갯수’가 틀렸다. 한자어 ‘개수(個數)’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개수’로 고쳐야 한다. ‘등굣길’과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쓰는 한자어 ‘횟수’는 맞는 표기이다.

③ X
‘어떡해’, ‘번번히’, ‘합격율’이 틀렸다. 뒤의 ‘낮습니까’를 꾸미는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어떻게’로 써야 하고, 부사는 ‘번번이’로 적는다. ‘합격’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율’이 아니라 ‘률’을 쓰므로 ‘합격률’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번번이 합격률이 낮습니까?’가 바른 표기이다.

④ O
‘미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바르게 적었다. ‘생각지’는 ‘생각하지’에서 ‘하’가 완전히 준 형태이고,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는 ‘-ㄹ게’로 적으므로 ‘할게’도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신년도’가 맞다는 이유만 보고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거나, ②에서 발음만 따라 ‘갯수’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③은 ‘어떡해/어떻게’, ‘-이/-히’, ‘율/률’의 세 표기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문장에 표시된 단어를 하나씩 분리해 검사한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로 풀 수 있는 서술어 자리인지 확인하고, ‘율/률’은 앞말의 끝소리를 확인하며, 사이시옷은 소리만 따르지 말고 허용되는 구성과 예외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신년도·회계 연도, 개수·횟수, 어떻게·번번이·합격률, 미처·생각지·할게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 다음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경우, 의미가 변하여 파생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② ‘언제∨할∨지∨모른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교재의∨제∨일장’: ‘제-’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썼으므로 맞지 않다.

④ ‘떠난지가∨오래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접두사는 뒷말에 붙이고,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이며,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두사: 어근 앞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드는 요소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
어미: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문법 요소이므로 어간과 붙여 쓴다.
의존 명사: 홀로 쓰이기 어렵지만 명사이므로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고, 뒤에 붙는 조사는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우리나라’를 붙여 쓰는 것은 맞지만, ‘의미가 변하여 파생어가 되었으므로’라는 설명이 틀렸다. ‘우리나라’는 ‘우리’와 ‘나라’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올바르게는 ‘우리나라: 하나의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이다.

② X
‘언제 할지 모른다’의 ‘-ㄹ지’는 의존 명사 ‘지’가 아니라 의문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할지’처럼 붙여 쓴다. 올바른 표기는 ‘언제∨할지∨모른다’이다.

③ O
‘제-’는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일’에 붙여야 한다. 따라서 ‘제∨일장’처럼 ‘제’를 띄어 쓴 표기는 맞지 않으며, ‘제일∨장’으로 고쳐 쓴다.

④ X
‘떠난 지가 오래다’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 ‘가’만 ‘지’에 붙으므로 올바른 표기는 ‘떠난∨지가∨오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같은 형태의 '지'라도 ②의 '-ㄹ지'는 어미라서 붙이고, ④의 '지'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단어를 붙여 쓴다는 사실만 맞더라도 그 형성 방식이나 품사 설명이 틀리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만 보지 않고 밑줄 친 요소의 문법적 성격을 먼저 판별한다. 접두사와 어미는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되 뒤의 조사는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할지'의 '-ㄹ지'는 어미라 붙이고, '떠난 지'의 '지'는 의존 명사라 띄어 쓴다.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수사에 붙인다.

NoteBase

문 3.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장 부호의 사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 즉 '한(恨)'을 말한다.

② 그는 "우리말(國語)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선배가 "나는 시민을…." 하면서 가셨는데 말끝을 잘 듣지 못했다.

④ 날짜: 2019. 4. 27. 토요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은따옴표, 소괄호·대괄호, 줄임표, 쌍점과 마침표의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작은따옴표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다. 소괄호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를 함께 보일 때 쓰지만,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줄임표는 점 여섯 개가 원칙이고 점 세 개도 허용되며, 줄임표로 문장이 끝나면 뒤에 마침표를 쓴다. 쌍점은 표제 뒤에 해당 항목의 내용을 제시할 때 쓸 수 있고, 숫자로 연월일을 나타낼 때는 년·월·일 자리에 각각 마침표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은 문장에서 특별히 드러내려는 말이므로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고, 한자어 '한'의 원어인 '恨'을 소괄호 안에 함께 보인 것도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고유어 '우리말'에 대응하는 한자어 '國語'를 소괄호에 넣은 '우리말(國語)'이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써야 하므로 '우리말[國語]'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문장은 '그는 "우리말[國語]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적절하다.
③ O — 말을 하다가 줄인 부분을 점 세 개의 줄임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문장이 끝나므로 뒤에 마침표를 덧붙인 네 점 '….' 표기가 적절하다.
④ O — '날짜'라는 표제와 그 내용을 구분하는 쌍점이 적절하다. 또한 '2019. 4. 27.'은 년·월·일을 각각 마침표로 대신한 표기이며, 일을 나타내는 마지막 마침표까지 썼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괄호의 모양이 함정이다. 한자어의 원어 한자를 보이는 '한(恨)'에는 소괄호를 쓰지만, 고유어 '우리말'과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國語'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안 표기가 앞말의 원어인지 대응어인지 먼저 판단한다. 한자어·외래어와 그 원어의 관계이면 소괄호, 고유어와 대응 한자어의 관계이면 대괄호로 구분한다. 줄임표와 날짜 표기는 점의 개수뿐 아니라 문장 종결점과 일을 나타내는 마지막 마침표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원어는 소괄호, 고유어의 대응 한자어는 대괄호이다.

NoteBase

문 4. 국어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찾을 도리’는 [차즐또리]로 발음하면 된다.

② ‘맑고 맑다’를 [말꼬]와 [막따]로 소리 내어 읽었다.

③ 김희혜 씨의 이름을 글자대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김히헤]로 호명하였다.

④ 현대 국어의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가지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keik]로 발음되는 외래어를 ‘케잌’이라 적지 않고 ‘케익’으로 적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의 연음·된소리되기, ‘ㅢ’와 ‘ㅖ’의 표준 발음, 외래어의 받침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ㄷ’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하며, ‘예·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음절 끝에서는 일곱 자음만 발음되지만, 외래어 표기는 실제 종성 발음의 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의 세부 원칙에 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찾을’은 받침 ‘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을’로 이어져 [차즐]이 되고,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찾을 도리’는 [차즐또리]로 발음한다.
② O — ‘맑고’에서는 겹받침 ‘ㄺ’ 가운데 ‘ㄹ’이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가 되어 [말꼬]가 된다. ‘맑다’에서는 ‘ㄺ’이 음절 끝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가 되어 [막따]가 된다.
③ O — ‘희’의 ‘ㅢ’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에 있으므로 [히]로 발음한다. ‘예·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혜’를 [헤]로 발음한 [김히헤]는 허용되는 발음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keik]를 ‘케익’으로 적었다는 부분이다. 현대 국어의 종성 발음이 일곱 가지라는 사실과 외래어의 표기 방식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다. 영어의 어말 무성 파열음 [k]가 이중 모음 [ei] 뒤에 오면 ‘으’를 붙여 적으므로, ‘케잌’도 ‘케익’도 아닌 ‘케이크’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일곱 가지’라는 맞는 사실을 제시한 뒤, 이를 외래어 표기에 잘못 적용한다. 음절 끝에서 실제로 나는 소리의 종류와 외래어를 한글로 옮기는 표기 원칙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문제에서는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음과 된소리되기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외래어 문제에서는 한국어의 종성 발음 규칙만으로 철자를 만들지 않고, 널리 정해진 외래어 표기 형태를 따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찾을 도리’는 [차즐또리], ‘맑고·맑다’는 [말꼬·막따], ‘김희혜’는 [김히혜]도 허용되며, cake는 ‘케이크’이다.

NoteBase

문 5.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

② 어휘의 종류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분되며, 친족어나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③ 자음 중에서 파열음(폐쇄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어의 문법·어휘·음운·높임 표현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는 조사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므로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어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이루어진 어휘 체계, 파열음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대립, 발달한 높임 표현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이다. 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나, 관형어가 꾸미는 말 앞에 놓이는 것처럼 문법적 제약이 있고 어순에 따라 강조점이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이다.
② O — 국어 어휘는 기원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분되며, 친족 관계를 세밀하게 나타내는 말과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③ O — 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세 계열로 대립한다. 예를 들어 'ㄱ·ㄲ·ㅋ', 'ㄷ·ㄸ·ㅌ', 'ㅂ·ㅃ·ㅍ'이 각각 3항 대립을 이룬다.
④ O — 국어는 주체·객체·상대 높임법, 높임 어휘와 호칭 등 공손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를 '제약이 전혀 없다'로 과장한 데 있다. 조사가 발달했다는 사실은 어순의 자유도를 높이지만 모든 어순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의 특징을 묻는 선지에서는 '비교적', '전혀', '항상' 같은 범위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조사가 발달한 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수식 관계와 의미·강조의 차이 때문에 어순 제약이 존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사 발달은 어순의 '상대적 자유'를 뜻하며, 어순의 '완전한 무제약'을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① 4월이면 매년 시에서 나무를 심었다.

② 어느덧 벚꽃이 활짝 피었다.

③ 목련은 소리도 없이 진다.

④ 사람들은 그곳에서 봄을 즐겼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로 쓰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어는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 장소·방법·정도 등의 뜻을 더하는 성분이다. 조사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지만,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는 그 단체가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도 쓰인다. 따라서 조사 모양만 보지 않고 서술어와의 의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에서'는 나무를 심은 주체인 단체 '시'를 나타내므로 주어이다. 여기서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② X — '활짝'은 '피었다'를 꾸며 꽃이 핀 모양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다른 문장 성분이 아니라 ③·④와 같은 부사어이다.
③ X — '소리도 없이'는 '진다'를 꾸며 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다른 문장 성분이 아니라 ②·④와 같은 부사어이다.
④ X — '그곳에서'는 '즐겼다'를 꾸며 봄을 즐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이때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다른 문장 성분이 아니라 ②·③과 같은 부사어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에 모두 '에서'가 쓰였다는 점이 함정이다. ①의 '시에서'는 행동의 주체이지만, ④의 '그곳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과 서술어의 관계를 묻는다. '누가 그 행동을 했는가'에 답하면 주어이고, '어디에서·어떻게·어느 정도로 했는가'에 답하며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단체+‘에서’는 주어가 될 수 있고, 장소+‘에서’는 부사어가 된다.

NoteBase

문 7. 다음 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포돌이가 웃는다. 그리고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서로 닮았다.
㉣ 포돌이 및 포순이가 웃는다.

① ㉠의 '그리고'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므로 감탄사이다.
② ㉡의 '와'는 그 앞말이 필수적인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의 '와'는 두 문장이 결합되었음을 뜻하는 접속 조사이다.
④ ㉣의 '및'은 두 문장이 결합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문장 부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 부사, 접속 조사, 부사격 조사를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속 부사는 다른 문장 성분을 직접 수식하지 않고 앞뒤의 말이나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이며, '그리고'와 '및'이 이에 해당한다. 접속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며, 부사격 조사 '와/과'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게 한다.
㉡에서는 '포돌이'와 '포순이'가 함께 주어를 이루지만, ㉢에서는 '포순이가'가 주어이고 '포돌이와'가 '서로 닮았다'의 상대를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그리고'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맞지만, 품사는 감탄사가 아니라 앞뒤 문장을 잇는 접속 부사이다. 틀린 표현 '감탄사'는 '접속 부사'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의 '와'는 '포돌이'와 '포순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하나의 주어를 이루게 하는 접속 조사이다. 틀린 표현 '필수적인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두 체언을 잇는 접속 조사'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의 '와'는 '포돌이와'를 '서로 닮았다'가 요구하는 상대를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로 만드는 부사격 조사이다. 틀린 표현 '접속 조사'는 '부사격 조사'로 고쳐야 한다.
④ O — ㉣의 '및'은 앞뒤의 대상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며, 문장 전체의 연결 관계에 관여하는 문장 부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문장이 결합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그리고’가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고 감탄사로 판단하거나, 형태가 같은 ‘와’를 모두 접속 조사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의 ‘와’는 체언 둘을 같은 자격으로 잇지만, ㉢의 ‘와’는 ‘닮다’가 요구하는 비교 상대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말이 홀로 쓰이는지 조사처럼 체언에 붙는지 확인한다. 조사 ‘와/과’는 두 체언이 문장에서 같은 자격이면 접속 조사이고, 한 체언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상대·대상을 나타내면 부사격 조사이다.

암기 포인트

‘그리고·및’은 접속 부사, 같은 자격을 잇는 ‘와/과’는 접속 조사, 서술어의 상대를 나타내는 ‘와/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밑줄 친 '-고' 중에서 겹문장(복문)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 어미를 모두 고른 것은?

저 아이가 형이겠㉠고 네가 동생이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 그래, 요즘은 건강하㉢고? 운동은 좀 하㉣고 있니?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결 어미로서 절과 절을 이어 겹문장을 만드는 '-고'와, 종결 어미 또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쓰여 겹문장을 만들지 않는 '-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결 어미는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겹문장을 만든다. 반면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와 본용언·보조 용언을 잇는 보조적 연결 어미는 절과 절을 잇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 '형이겠고 네가 동생이겠구나'의 '-고'는 두 절을 대등하게 잇는 연결 어미이다.
㉡ '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의 '-고'는 '업다'와 '달려가다'가 나타내는 두 사건을 이어 겹문장을 만든다.
㉢ '건강하고?'의 '-고'는 물음을 나타내며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이다.
㉣ '하고 있니?'의 '-고'는 본용언 '하다'와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있다'를 잇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은 모두 절과 절을 잇는 연결 어미이므로 겹문장을 만든다. 틀린 부분은 '㉠㉡'이며, 겹문장을 만들지 않는 어미는 '㉢㉣'이다.
② X — ㉢은 종결 어미이지만 ㉡은 두 사건을 잇는 연결 어미이므로 둘을 모두 고를 수 없다. 틀린 부분은 '㉡㉢'이며, ㉡을 ㉣로 고치면 '㉢㉣'이 된다.
③ O — ㉢은 종결 어미이고 ㉣은 보조적 연결 어미이므로 둘 다 절과 절을 이어 겹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④ X — ㉣은 보조적 연결 어미이지만 ㉠은 두 절을 대등하게 잇는 연결 어미이므로 둘을 모두 고를 수 없다. 틀린 부분은 '㉠㉣'이며, ㉠을 ㉢으로 고치면 '㉢㉣'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형태가 모두 '-고'로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은 뒤에 물음표가 있어 문장을 끝맺고, ㉣은 '-고 있다'라는 보조 용언 구성이라는 점을 놓치면 연결 어미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의 앞뒤에 각각 독립된 절의 서술어가 있는지 먼저 본다. 절과 절을 이으면 겹문장을 만들지만, 문장을 끝맺거나 '-고 있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으면 겹문장을 만들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절+절의 '-고'는 연결 어미, 문장 끝의 '-고'는 종결 어미, '-고 있다'의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NoteBase

문 9. 높임법(존대법)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할머니께서는 항상 북녘을 바라보며 여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② 이제는 꽃가마에 누워 저 멀리 가십니다.

③ “할머니! 아버지도 그 뜻을 압니다!”

④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의 대상이 사람인지, 문장 속 높임 표현이 주체와 청자의 관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 ‘계시다’ 등을 사용한다. ‘계시다’는 사람인 주체의 ‘있다’를 높이는 말이므로 추상적인 사물 자체에는 쓰지 않는다. 압존법은 높여야 할 주체가 듣는 이보다 낮은 사람일 때 그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체인 ‘할머니’를 조사 ‘께서는’과 높임 표현 ‘앉아 계셨습니다’로 높였다. 앞의 연결된 동작인 ‘북녘을 바라보며’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② O — ‘가십니다’의 ‘-시-’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며, ‘누워’는 그 이동의 자세를 나타내므로 높임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O — 할머니에게 그보다 낮은 아버지에 관해 말하는 상황이므로 압존법에 따라 ‘아버지도 그 뜻을 압니다’라고 한 것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람이 아닌 추상 명사 ‘유지’를 주체로 삼아 ‘머물러 계십니다’라고 높인 부분이다. ‘계시다’는 사람인 주체의 ‘있다’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올바르게는 ‘할머니의 유지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할머니의’라는 말 때문에 ④의 주체까지 할머니라고 보기 쉽지만, 서술어 ‘머물러 계십니다’의 문법적 주체는 ‘유지’이다. 높임 여부는 소유자가 아니라 서술어와 직접 호응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의 문법적 주체를 찾고 그 주체가 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다. 이어 주체와 청자의 높낮이 관계를 살펴 압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계시다’는 사람을 높이고, 압존법은 듣는 이보다 낮은 주체의 높임을 누른다.

NoteBase

문 10. 다음 문장 중에서 의사 전달이 가장 명확한 것은?

① 다시 풀려진 묶었던 머리를 나는 움직이지 않게 더 꽉 묶였다.

② 그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

③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④ 두 명의 경찰이 범인 둘을 잡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필수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행위의 주체나 수량의 범위가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확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고 수식 관계가 분명하며, 행위의 주체·대상과 수량의 범위가 하나의 의미로 확정되는 문장이다. 문법적 호응이 어긋나거나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표현을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풀려진 묶었던 머리'는 수식 관계가 어색하고, 주어 '나는'과 피동 서술어 '묶였다'도 호응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풀린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더 꽉 묶었다.'로 고치면 주체와 동작이 분명해진다.

② X

'이발을 한다'는 그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는다는 뜻인지, 자신의 머리를 깎거나 깎게 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도에 따라 '그는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일한다.' 또는 '그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다.'로 구체화해야 한다.

③ O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이 '여러분의 경찰'을 꾸미고, 생략된 주어가 그 경찰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행위의 주체와 수식 관계가 분명하여 의사 전달이 가장 명확하다.

④ X

'두 명의 경찰'과 '범인 둘'의 수량 범위가 불분명하여 두 경찰이 함께 범인 두 명을 잡았다는 뜻과 경찰마다 범인 두 명씩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의 뜻이라면 '경찰 두 명이 함께 범인 두 명을 잡았다.'로 고쳐 수량 관계를 분명히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짧고 자연스러워 보여도 '이발을 하는 사람'이 이발사인지 손님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④도 사람 수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인지 '각각'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먼저 확인하고, 수식 대상과 행위 주체를 확정한 뒤 수량 표현의 범위가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지 점검한다. 어느 단계에서도 다른 해석이 생기지 않는 문장이 명확한 문장이다.

암기 포인트

명확한 문장 판단의 핵심은 호응, 수식 관계, 행위 주체, 수량 범위의 네 가지이다.

NoteBase

문 11. 위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부(富)도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낭비는 여분의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분의 재물이란 곧 잉여의 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의복의 사치는 뭇 사람들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여자가 방물장수를 널리 불러들여 진귀한 비단, 가는 모시 베, 고운 삼베, 용을 아로새긴 비녀, 나비 모양의 노리개 등을 사들여 치장하면 식자(識者)들은 벌써 그 남편이 바르지 못함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부인은 무릇 "나무 비녀에 베치마를 입어서 성장(盛裝)한 다른 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는 ㉠부패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지출과 검소를 중시하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서 ㉣낭비를 마치 큰 범죄나 되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낭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낭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모든 생산과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사치품, 모든 유행, 모든 음식 쓰레기가 낭비이며, 공장의 과잉 설비 역시 낭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물품 이외에 더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더 이상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①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와 부(富)를 부정적으로 여겼다.

②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공직자 부인의 첫째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았다.

③ 현대 사회에서도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는 경직된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

④ 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지의 내용이 글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 또는 글의 일부를 근거 없이 확대하여 해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은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금욕적 도덕주의를 설명한 뒤,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을 넘어선 생산과 소비까지 모두 배제하면 인간다운 생활과 문화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본문에 제시된 사실과 글쓴이의 견해를 구분하고, 본문에 없는 서열이나 단정을 덧붙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첫 문단에서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겼고, 이러한 인식이 부도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부를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공직자 부인의 첫째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았다'이다. 본문은 정약용이 공직자 부인의 사치와 치장을 경계하고 나무 비녀와 베치마로 검소하게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일 뿐, 검소함을 여러 덕목 가운데 '첫째 덕목'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정약용은 공직자 부인이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한 차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이다.
③ O — 셋째 문단에서 현대 사회에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④ O — 마지막 문단에서 꼭 필요한 물품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며, 그러한 삶에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검소한 차림을 해야 한다'는 본문의 취지를 이용해 '첫째 덕목'이라는 서열까지 덧붙인 선지이다. 본문과 방향이 비슷하더라도 제시되지 않은 순위나 최상급 표현을 추가하면 적절하지 않은 이해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서술어와 한정 표현을 본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특히 '첫째', '유일한', '반드시', '모두'와 같은 표현은 본문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본문의 취지와 비슷해도, 본문에 없는 서열·범위·단정을 보태면 과도한 해석이다.

NoteBase

문 12. ㉠~㉣의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부(富)도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낭비는 여분의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분의 재물이란 곧 잉여의 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의복의 사치는 뭇 사람들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여자가 방물장수를 널리 불러들여 진귀한 비단, 가는 모시 베, 고운 삼베, 용을 아로새긴 비녀, 나비 모양의 노리개 등을 사들여 치장하면 식자(識者)들은 벌써 그 남편이 바르지 못함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부인은 무릇 "나무 비녀에 베치마를 입어서 성장(盛裝)한 다른 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는 ㉠부패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지출과 검소를 중시하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서 ㉣낭비를 마치 큰 범죄나 되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낭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낭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모든 생산과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사치품, 모든 유행, 모든 음식 쓰레기가 낭비이며, 공장의 과잉 설비 역시 낭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물품 이외에 더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더 이상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① ㉠膚敗
② ㉡直決
③ ㉢奢移
④ ㉣浪費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제시된 한자어의 음과 뜻에 맞는 한자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패는 腐敗, 직결은 直結, 사치는 奢侈, 낭비는 浪費로 쓴다. 같은 음을 지닌 한자라도 뜻이 다르므로 단어의 문맥적 의미까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부패’를 ‘膏敗’로 쓴 부분이 틀렸다. ‘썩다, 타락하다’라는 뜻의 부패는 썩을 부(腐)와 패할 패(敗)를 써서 ‘腐敗’로 표기한다.

② X
‘직결’을 ‘直決’로 쓴 부분이 틀렸다. ‘바로 연결됨’을 뜻하는 직결은 곧을 직(直)과 맺을 결(結)을 써서 ‘直結’로 표기한다.

③ X
‘사치’를 ‘奢移’로 쓴 부분이 틀렸다.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쓰는 일을 뜻하는 사치는 사치할 사(奢)와 사치할 치(侈)를 써서 ‘奢侈’로 표기한다.

④ O
‘낭비’는 물건이나 시간 등을 헛되이 쓰는 일을 뜻하며, 물결 랑(浪)과 쓸 비(費)를 써서 ‘浪費’로 표기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膏, ②의 決, ③의 移는 글자 모양이나 음 때문에 정답처럼 보이지만 각각 ‘기름 고’, ‘결단할 결’, ‘옮길 이’이므로 해당 단어의 뜻과 맞지 않는다. 특히 ‘결’은 직결·연결에서는 맺을 결(結)을 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의 음만 맞추지 않고 단어 전체의 뜻을 풀어 본다. ‘썩음’은 腐, ‘맺음·연결’은 結, ‘사치’는 侈, ‘비용을 씀’은 費와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腐敗는 썩어 무너짐, 直結은 바로 맺음, 奢侈는 사치함, 浪費는 헛되이 씀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표현 행위는 사고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는 당연히 사고 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을 하고 난 뒤에나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발전된 생각을 얻기도 한다. 또한 청자나 독자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확신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고와 표현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_____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좀 더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생긴다. 한편 표현 활동을 하다 보면 어휘 선택, 내용 조직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이를 통해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사고력과 표현력은 상호 협력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흔히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들기도 하는데,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다상량'은 충분한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말하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 활동과 사고 활동의 관련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① 충분한 사고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은 세련되게 된다
② 사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사고와 표현 활동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을 상승시킨다
④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사고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빈칸의 앞뒤 문장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고 활동과 표현 활동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고와 표현은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생각을 말이나 글로 구체화하면 사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사고력이 향상되고, 표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시 사고하면 표현력도 향상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충분한 사고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은 세련되게 된다'이다. 이 말은 사고가 표현에 미치는 한 방향의 영향만 제시하며, 빈칸 뒤에서 설명하는 사고와 표현의 상호 작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사고 활동과 표현 활동이 서로 영향을 주며 각각의 능력을 높인다고 해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만을 제시한 것이다. 생각을 표현하면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빈칸 뒤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사고를 통해 표현 능력도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표현이 사고력을 높이고 사고가 표현력을 높이는 상호 작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O
사고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사고력이 향상되고, 표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면서 표현 능력도 향상된다는 뒤의 설명을 정확히 요약한다. 앞 문단의 '사고와 표현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이어 받는 표현이기도 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사고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이다. 글은 말하기와 글쓰기를 모두 표현 활동으로 묶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도 사고와 표현의 관련성이 말하기에도 적용된다고 밝힌다.
올바르게는 말하기와 글쓰기 모두 사고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글의 일부 내용과는 맞지만 각각 사고에서 표현으로, 표현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한 방향만 담는다.
빈칸 뒤 문단 전체를 아우르려면 두 방향을 모두 포함한 ③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반복어와 빈칸 뒤의 구체적 설명을 함께 확인한다. 뒤에서 A가 B를 높이고 다시 B가 A를 높이는 양방향 관계가 제시되면, 두 내용을 포괄하는 '상호 작용' 표현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표현은 사고를 다듬고, 사고는 표현을 다듬는다. 사고력과 표현력은 상호 상승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짬짬이 아주 조금씩 독서를 시작한다. 독서는 책상에 앉아 책상 등을 켜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타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도 시간적 여유와 앉을 자리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짬짬이 독서'를 추천한다. 항상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5⨂10분간 2⨂3장 읽고, 친구나 음식을 기다리면서 5⨂10분을 읽는다. 분량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짬짬이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① 矯枉過直

② 深思熟考

③ 尸位素餐

④ 水滴穿石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적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 가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글의 중심 생각에 맞는 고사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水滴穿石(수적천석)은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낸다는 뜻으로, 미미한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다. 글의 '짬짬이 아주 조금씩'과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이 이 의미에 대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矯枉過直(교왕과직)은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만든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정도를 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글은 지나친 교정을 말하지 않으므로, 글에 맞는 표현은 水滴穿石이다.
② X — 深思熟考(심사숙고)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헤아린다는 뜻이다. 이 글의 핵심은 신중한 사고가 아니라 짧은 독서를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은 水滴穿石이다.
③ X — 尸位素餐(시위소찬)은 직책만 차지한 채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녹만 받는다는 뜻이다. 이 글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글에 맞는 표현은 水滴穿石이다.
④ O — 水滴穿石(수적천석)은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몇 장씩 읽는 일을 지속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는 글의 중심 생각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글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뜻하는 深思熟考를 고르면 안 된다. 선지는 글에 나온 낱말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의미인 '작은 실천의 꾸준한 반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사 성어의 핵심 의미를 먼저 한 문장으로 바꾼 뒤 글의 중심 문장과 대응시킨다. '조금씩·계속·지속적으로'가 반복되면 작은 노력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의 水滴穿石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水滴穿石은 '작은 물방울의 반복이 돌을 뚫는다', 곧 작은 노력의 꾸준한 축적이다.

NoteBase

문 15. <관동별곡>의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졍陽양寺ᄉᆞ 眞진歇헐臺ᄃᆡ 고텨 올나 안ᄌᆞ 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ᄉᆞ토 헌ᄉᆞ할샤
ᄂᆞ거들 ᄆᆞᄃᆡ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잣ᄂᆞ ᄃᆞᆫ白뵉玉옥을 믓것ᄂᆞ ᄃᆞᆫᄂᆞᆺ
東동溟명을 박ᄎᆞᄂᆞ ᄃᆞᆫ ㉡北북極극을 괴왓ᄂᆞ ᄃᆞᆫᄂᆞᆺ
놉흘시고 望망高고臺ᄃᆡ 위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하ᄂᆞ의 ᄎᆞᆷ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千쳔萬만 劫겁 디나ᄃᆡ 록 구필 줄 모ᄅᆞᄂᆞ다ᄂᆞᆫ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ᄂᆡ ᄆᆞ 고잇ᄂᆞ가ᄂᆞᆫ

①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이다.

② ㉡의 지시적 대상은 '북극성'이지만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 과장법, 대구법,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④ 금강산 봉우리들의 모습에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으로서 작가 자신을 견주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동별곡」의 고어 풀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 표현법, 화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유법은 '듯'과 같은 연결어를 드러내어 대상을 직접 견주는 표현이고, 반어법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뜻을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지문은 '부용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처럼 직유법을 사용하며, 금강산 봉우리의 높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통해 충신의 절개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라는 뜻이므로, '헌사토 헌사할샤'는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라고 감탄하는 표현이다.
② O — ㉡ '북극'은 문맥상 북극성을 가리키며, 전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중심에 있는 별이라는 점에서 임금을 상징하기도 한다.
③ X — '날거든 뛰지 마나/섰거든 솟지 마나' 등에는 대구법이,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나니'에는 과장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듯'을 사용한 핵심 비유는 직유법이며, 겉뜻과 속뜻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은유법, 과장법, 대구법, 반어법이 사용되었다'는 '직유법, 과장법, 대구법 등이 사용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 솟아 오랜 세월 굽히지 않는 모습은 임금에게 뜻을 아뢰며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연상시킨다. 화자는 그 봉우리들에 지조와 충절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견주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실제로 쓰인 과장법·대구법에 쓰이지 않은 반어법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듯'이 반복된 부분을 은유법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비유를 나타내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므로 직유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선지는 나열된 항목을 하나씩 지문에 대응한다. '듯·처럼·같이'가 드러나면 직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대구, 실제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야 반어로 판단한다. 고전시가의 자연물은 외형 묘사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지조·충절 같은 내면을 투영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듯'은 직유, 굽히지 않는 봉우리는 충절, 북극은 임금의 상징이다.

NoteBase

문 16. ㉠~㉤을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잎으로 곤충 따위의 작은 동물을 잡아서 소화·흡수하여 양분을 취하는 식물을 통틀어 식충 식물이라 한다.
대표적인 식충 식물로는 파리지옥이 있다.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는 파리지옥은 축축하고 이끼가 낀 곳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 두 개의 잎에는 각각 세 개씩의 긴 털, 곧 감각모가 있다.
㉡ 낮에 파리 같은 먹이가 파리지옥의 이파리에 앉으면 0.1초 만에 닫힌다.
㉢ 중심선에 경첩 모양으로 달린 두 개의 잎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톱니가 나 있다.
㉣ 약 10일 동안 곤충을 소화하고 나면 잎이 다시 열린다.
㉤ 이 감각모에 파리 따위가 닿으면 양쪽으로 벌어져 있던 잎이 순식간에 서로 포개지면서 닫힌다.
파리지옥의 잎 표면에 있는 샘에서 곤충을 소화하는 붉은 수액이 분비되므로 잎 전체가 마치 붉은색의 꽃처럼 보인다. 파리지옥의 잎이 파리가 앉자마자 0.1초 만에 닫힐 수 있는 것은, 감각모가 받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수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잎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새 대상의 도입, 지시 표현의 연결, 작동 과정의 시간 순서를 근거로 문장의 배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
1. ㉢: 중심선에 연결된 두 잎과 가장자리의 톱니를 먼저 소개한다.
2. ㉠: 앞에서 소개한 두 잎에 각각 세 개의 감각모가 있음을 설명한다.
3. ㉤: '이 감각모'에 먹이가 닿으면 잎이 닫힌다고 이어 간다.
4. ㉡: 먹이가 이파리에 앉은 뒤 잎이 0.1초 만에 닫힌다는 반응 속도를 제시한다.
5. ㉣: 곤충을 약 10일 동안 소화한 뒤 잎이 다시 열린다는 마지막 단계를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의 '두 개의 잎'이 ㉠의 대상을 마련하고, ㉠의 '감각모'가 ㉤의 지시 표현 '이 감각모'의 선행어가 되며, 잎이 닫힌 뒤에야 소화와 재개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두 개의 잎'을 ㉢보다 먼저 두어 대상 소개의 흐름이 어색하고, 잎이 다시 열리는 ㉣을 먹이가 앉아 잎이 닫히는 ㉡보다 앞에 두었다. 틀린 배열 ㉠-㉢-㉤-㉣-㉡은 올바르게 ㉢-㉠-㉤-㉡-㉣로 고친다.
② O — ㉢에서 두 잎의 구조를 소개하고, ㉠에서 감각모를 제시한 뒤, ㉤의 '이 감각모'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어 ㉡에서 닫히는 속도를 밝히고 ㉣에서 소화 후 다시 열리는 과정으로 마무리한다.
③ X — ㉠과 ㉤의 '감각모-이 감각모' 연결은 맞지만, 두 잎의 구조를 처음 소개하는 ㉢이 그 뒤에 놓여 설명 순서가 뒤바뀌었다. 틀린 배열 ㉠-㉤-㉢-㉡-㉣은 올바르게 ㉢-㉠-㉤-㉡-㉣로 고친다.
④ X — ㉤의 '이 감각모'가 선행어인 ㉠의 '감각모'보다 먼저 나와 지시 관계가 끊기며, 잎이 다시 열리는 ㉣도 잎이 닫히는 ㉡보다 앞에 놓였다. 틀린 배열 ㉢-㉤-㉠-㉣-㉡은 올바르게 ㉢-㉠-㉤-㉡-㉣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과 ㉤만 '감각모-이 감각모'로 묶고 그 앞의 ㉢을 놓치기 쉽다. 또한 잎이 닫히는 ㉡보다 소화가 끝나 다시 열리는 ㉣이 먼저 올 수 없다는 과정의 선후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배열 문제는 먼저 '이, 그, 이러한'과 같은 지시 표현의 선행어를 찾고, 새 대상의 소개가 세부 설명보다 앞서는지 확인한 뒤, 사건의 시작과 결과가 시간 순서에 맞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잎의 구조 소개 → 감각모 제시 → '이 감각모'의 작동 → 닫히는 속도 → 소화 후 재개방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국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역시 노동, 어머니는 장사를 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것은 귀국 즉시가 아니었고, 한번은 죽은 내 남동생의 주사를 맞히려고 하는데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어 이웃에게 빌리려고 했으나 어디 한 군데서도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 그 약값이 없어 동생은 죽었다. '없으면 문둥이보다 더 더럽다.'라는 것은 당신이 노상 한 말이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장사판에 뛰어든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그 덕으로 우리는 살았다. 이때도 생선을 지고 그 뒤치다꺼리는 아버지가 했다. 그 장사를 몇 년 했다. 형이 장가든 것도, 내가 그런 것도, 또 밑으로 누이동생 둘이 시집간 것도, 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덕을 입었다. 큰 벌이는 아니었으나 그 동안 먹고 지낸 것, 우리들 사 남매를 장가가고 시집가게 한 조그만 힘은 되었다. [중략]
어머니는 숱한 고생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_____'였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지리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다.

①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②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
③ 원님 덕에 나팔 분다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드러난 어머니의 처지와 각 속담의 뜻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단서는 오랜 희생과 노력이 가족의 삶을 떠받쳤지만 정작 자신의 공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는 좋은 옷을 입었어도 밤이라 남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애쓴 보람이나 공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다. 이 뜻이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뒤 문장과 직접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는 애쓴 보람이나 공로를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했지만 자신의 노력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처지에 맞는다.
② X — ㉠을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로 보는 것이 틀리다. 이 속담은 고기가 없는 솔밭에서 낚시하는 것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구하는 일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어머니의 노력과 공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가 들어가야 한다.
③ X — ㉠을 '원님 덕에 나팔 분다'로 보는 것이 틀리다. 이 속담은 다른 사람의 권세나 덕을 입어 자신도 이익을 얻거나 호강한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남의 덕을 본 상황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희생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④ X — ㉠을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로 보는 것이 틀리다. 이 속담은 쓸모없어 보이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오래 남아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끝까지 남는 사람의 쓸모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어머니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어머니 덕분에 자녀들이 살아가고 혼인했다는 대목만 보면 ③의 '덕'에 끌릴 수 있다. 그러나 ③은 남의 덕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는 사람의 입장을 나타내며, ㉠은 가족을 위해 애썼지만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은 어머니의 입장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속담을 넣은 직후의 풀이 문장을 먼저 확인한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와 의미가 같은 속담은 남이 알아보지 못해 보람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①이다.

암기 포인트

비단옷을 밤에 입으면 남이 보지 못한다. 곧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 보람이 없는 상황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 학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라 하는 것은 도(道)를 전하고 학업(學業)을 주고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닐진대 누가 능히 의혹이 없을 수 있으리오. 의혹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된 것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道)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요, 나보다 뒤에 났다 하더라도 그 도(道)를 듣기를 또한 나보다 먼저라고 하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다. 나는 도(道)를 스승으로 하거니, 어찌 그 나이의 나보다 먼저 나고 뒤에 남을 개의(介意)하랴! 이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것이요,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① 스승은 도(道)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

② 도(道)가 있는 사람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의혹되는 바가 있으면 스승을 좇아서 그 의혹된 것을 풀어야 한다.

④ 나보다 먼저 난 이가 도(道)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의 반복되는 대조와 결론을 바탕으로 중심 주제를 찾는 문제이다. 글은 스승을 정하는 기준이 나이나 신분이 아니라 도(道)의 유무임을 강조한다.

핵심 개념

주제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생각이다. 이 글은 스승의 역할과 배움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뒤에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스승이 도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 준다는 것은 첫머리에 제시된 스승의 역할일 뿐, 글 전체의 결론을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스승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치며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라는 세부 내용이다.

② O
글은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과 뒤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예로 들고, 도를 먼저 깨달았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마지막의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③ X
의혹이 있는데도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스승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근거이지만,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스승의 기준이라는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의혹이 있으면 스승을 따라 그 의혹을 풀어야 한다'라는 세부 내용이다.

④ X
'나보다 먼저 난 이가 도를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생이지지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글은 사람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므로 스승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나이의 선후가 아니라 도를 먼저 깨달았는지를 스승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올바르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보다 먼저 도를 깨달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모두 본문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어서 정답처럼 보이지만, 각각 스승의 역할과 스승이 필요한 이유만 나타낸 세부 내용이다. 주제는 이러한 내용을 아우르는 결론인 '나이와 신분이 아니라 도의 유무가 스승의 기준이다'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 문항에서는 반복되는 대조와 글의 마지막 결론을 먼저 확인한다. 일부 문장만 요약한 선지보다 글의 전개 전체를 포괄하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나이와 신분은 스승의 기준이 아니며,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다.

NoteBase

문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①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로 본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②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준다.
③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늘은 나무가 자라면서 저절로 드리워지는 것이다.
④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산수유나무가 대비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적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작품의 구체적인 시어 및 문장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은 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을 한 해 동안 지어 얻은 농작물로 보고, 산수유나무를 농부처럼 형상화한다.
그늘은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내어 주는 결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늘을 '나무의 한 해 농사'라고 하고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표현한다. 나무가 만드는 그늘을 농사의 결실로 본 발상이 참신하므로 적절하다.

② O
'옥말려든다', '그늘 농사'와 같은 일상적·사전적 용법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은 마음의 그늘이 움츠러드는 모습과 나무의 그늘이 넓어져 결실이 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떠올리게 하므로 적절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저절로 드리워지는 것이다'이다. 작품은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그늘을 나무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결실로 본다. 올바르게는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늘은 나무가 공들여 이루어 낸 결실로 형상화된다'이다.

④ O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지만,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좁쌀 다섯 되만큼 풍성해진다. 움츠러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산적으로 그늘을 넓히는 나무가 대비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실제 자연 현상만 보면 그늘은 나무가 자라며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자연 현상의 사실성보다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한 해 농사'라는 시적 화자의 인식이 판단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의 적절성을 물으면 선지의 핵심 표현을 본문의 대응 시어와 직접 대조한다. 본문이 명시적으로 부정한 내용을 선지가 긍정하면 부적절한 설명이다.

암기 포인트

그늘은 저절로 생긴 부산물이 아니라 나무가 지은 농사의 결실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 채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비로소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과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몸을 씻은 다음 상 앞에 앉아서도 나는 아직 아주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나 그런 건 괘념할 필요가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두른 흔적이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線)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형이 낮에 나의 그림을 찢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던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천 리 길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던 수수께끼의 해답도 거기 있었다. [중략]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 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 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몰랐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① 형이 맺은 소설의 결말은 동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② 형은 환자의 죽음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소설 쓰기를 통해 극복한다.

③ 동생은 형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뚜렷하지 않은 자신의 아픔을 돌아본다.

NoteBase

④ 동생은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혜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과 동생이 각자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와, 소설 쓰기가 형의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은 전쟁과 환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아픔의 실체를 알고 있으며, 소설을 통해 그 아픔을 직시하고 다시 병원 일을 시작할 힘을 얻는다. 동생은 아픔은 느끼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그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한 채 방황한다.
혜인은 이러한 동생의 원인 불명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생은 형의 소설을 다 읽은 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설의 결말은 동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② O — 형은 소설 속에서 자신의 전쟁 체험과 환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처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관념의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병원 일을 시작할 용기와 힘을 얻는다.
③ O — 동생은 형의 소설을 읽은 뒤 형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견주며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는 모습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혜인'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이다. 혜인은 아픔의 원인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동생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동생 역시 혜인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창작의 좌절을 되짚으며 방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혜인이 동생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관계를 뒤집고, 동생의 태도도 '단호한 거부'로 과장한다.
본문에서 혜인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동생의 아픔을 의심하며, 동생은 확신에 찬 거부가 아니라 자기 아픔의 근원을 찾지 못해 망설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설명은 서술자의 직접 진술과 행동의 변화에 대응시킨다. '추리가 빗나갔다',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처럼 본문에 직접 제시된 표현을 먼저 근거로 삼고, '충분히', '단호하게'와 같은 강한 단정이 실제 태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형은 아픔의 원인을 알고 소설로 직면하여 회복하고, 동생은 원인을 모르는 아픔 때문에 방황한다.

NoteBase